

2024년도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4. 10. 22(화) 14: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2024년도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 81 작품으로, 초연부문 57 작품, 재연부문 24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8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20%)에 두었다. 다양한 형태(작품 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악보와 미디 음원을 검토하였으며,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 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창제는 작곡 콩쿠르가 아니고 기획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페스티벌로, 한국 창작음악계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동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는 연주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창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품을 제출해 주신 모든 지원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올해 접수된 관현악 64곡, 협주 17곡 중 관현악 5곡이 최종 선정되었다. 협주곡의 경우 독주 악기를 덮어버리는 작품들이 다수 있어 아쉬웠고, 솔로 파트에서 더 실험되어도 되었을 법한 부분들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단조로운 수준의 패세지에서 멈추어 버린 듯한 아쉬운 작품들이 있었다.

예년과 유사하게 각 악기들의 현대적인 주법을 사용한 곡이 대다수였으며 관현악만이 가지고 있는 합성된 소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적었고, 전통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의 관현악기법 혹은 관현악 울림이 표현된 작품이 다소 적은 점이 아쉬웠다.

협주곡은 연주자의 기량을 뽐내도록 작곡하는 작품 인만큼 연주자와의 협업을 통해 현대적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품이 많이 연구되길 기대한다.

악기와 악기 간의 소리와 질감을 섞어 합성된 새로운 소리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다양한 양식적 시도를 통해 현대적 감각을 가진 한국적인 아이디어가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이 되길 희망한다.

전체적으로 실험적 시도와 작곡가의 음향에 대한 탐구가 주요 모티브이고, 조성과 무조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고, 대중 친화적인 작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최종 선정되지 못한 수작들이 많은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 향후에는 연주회의 기회가 늘어나서 작곡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되고, 청중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